



보도자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공동) 서영석·신현영·이수진·이용빈, 박양동, 김봉천, 최문석, 신인철, 김성기, 정수연
담당자	전동환 선임팀장 / 010-3182-1479	담당자	이민우 팀장 / 010-6278-4072
	2022. 2. 13 (일)	E-mail	mwlee83@hanmail.net
사진	0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 「2030 보건의료인을 만나다」

“우리들의 코로나19 이야기-확진환자·이송·진료·상담·투약·백신·국가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 다이너마이트청년선대위는 12일(토) 오후 5시 30분 블루소다 미래당사(합정역 소재)에서 “우리들의 코로나 이야기”를 주제로 「2030 보건의료인을 만나다」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건강위 2030 청년대표인 정수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3년째인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지내 온 2030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공정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생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과의 토크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충과 희생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감염병 바이러스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2030 청년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더욱 당혹스럽고 생경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나선 2030 보건의료인과 함께 위로를 나누고 보듬어 나가며 미래의 국가방역시스템 구축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30 보건의료인 만남의 행사는 권지웅 청년선대위 위원장의 사회로 코로나19 환자를 만나며 겪은 의사(김현지), 치과의사(정상-김창우), 간호조무사(홍성애), 한의사(주홍원), 약사(정수연), 응급구조사(이용준), 작업치료사(나성욱), 물리치료사(김양래)

등 2030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듣고, ‘코로나19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에 대해 좌담을 진행했다.

2년이 넘게 코로나19 시대를 겪어 온 2030 보건의료인들은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업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병원에서의 작업치료와 간호조무업무, 음압병실에서 생신을 맞이한 70대 할머니와의 만남, 재택치료자의 약제 상담 및 고충 상담, 1세 미만 확진 아이의 눈망울과 걱정스런 부모와의 소통, 응급실에 실려온 확진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등 2030 보건의료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코로나19 이야기가 진행됐다.

국민건강위는 2030 청년 보건의료인과 함께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백신 부작용에 국민 보호 등 코로나19 이후의 방역대책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며, 이재명 후보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보건의료체계 대전환을 열자” 는 의지를 공유하는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끝)

[첨부] 2022.2.12. 2030 보건의료인들을 만나다 현장사진

